

정부 땅 투기 이어 ‘세금폭탄’ 투하

○ 심층취재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 사건’

⑥ 폐사 위기에 내몰린 봉은사

정부는 봉은사 토지 수용을 마무리하자마자 그 이듬해인 1971년 8월 거액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조계종 총무원에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어설픈 토지 수용 계약 후 중단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투기억제세를 부과해 불교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억원 상당의 투기억제세는 총무원이 봉은사 토지를 매각하고 국가기관이었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매입한데 대해 정부가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하등 관계없는 사안임으로 절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단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정부청사 이전을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해놓고 1년 뒤 이를 되팔아 천문학적 이익금을 남긴 반면, 불교계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았다.

총무원으로서 도저히 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자, 정부는 통보 4개월 만에 미납 명목으로 봉은사 경내지를 압류하고, 1971년 12월21일자로 공매처분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땅을 강탈당한 봉은사는 이후 정부 차원의 투기억제세 부과로 폐사 직전까지 가는 사태를 맞았다.

이미 봉은사는 10만평에 달하는 토지가 정부로 넘어갈 당시 사세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었다. 1970년 9월 계약 때, 10만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내지도 매각하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봉은사가 정부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10만평 가운데는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부지 2만여 평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족 평수에 대해서는 사사지(종교용지)라도 대체 양도하기로 한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요구했고 이후 정부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경내지까지 추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찰 경내지는 4000여 평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토지도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잡다못한 종단은 탄원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 강

어설픈 토지수용 계약 후
중단 안팎 비판 거세지자
돌연 ‘투기억제세’ 부과

통보 4개월만에 미납 명목
경내지 압류 공매처분 공고

압에 의해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상공부에 매도했는데 투기억제세가 부과된 것 자체가 극히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무원장 석주스님은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1970년 9월27일 종단은 정부 요청에 의해 봉은사 토지를 상공부에 매도하고 총무처로부터 공무원교육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매도 협의 당시 부동산 투기와 하등 관계없는 것이므로 절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진행됐다…투기억제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해 천 년고찰인 봉은사의 사사지마저 압류하고 공

매처분하기로 공고하고 있다. 정부 집행에 의해 폐양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 공식적으로는 정부 요청에 의한 매각이었지만 그 이면에 국가권력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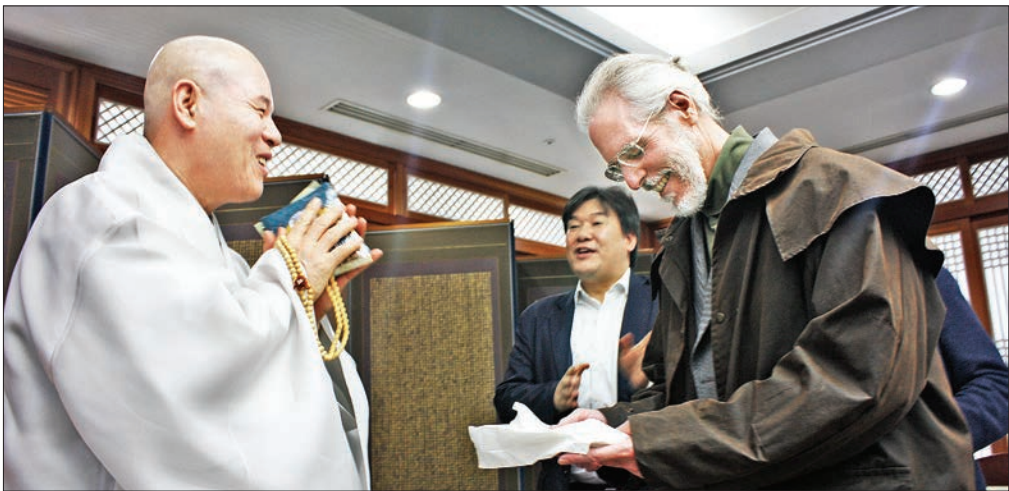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도 1971년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8차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종단차원에서 봉은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정부의 부당한 투기억제세 부과와 강제 집행에 의해 역사·문화적인 대찰이 일시에 폐망에 이르게 됐다고 규탄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봉은사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문화와 한국불교 성장에 커다란 요람이자 기지이며 현재 또한 그렇다”면서 “봉은사를 폐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하며, 봉은사 보전을 위해 최후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 한다”고 결의했다.

투기억제세로 총무원을 압박한데는 매각 이후 불교계 안팎으로 확산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봉은사는 물론이고 대강백 탄허스님과 지효스님, 석웅스님 등 종회의원들도 매각에 대한 부담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커다란 파장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1972년 1월6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압류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공매처분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게 된다. 잇따른 스님들의 탄원과 비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봉은사는 10만평 매각 사태로 토지 대부분을 잃었고, 남은 부지마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불사가 제한되는 등 40여년 간 큰 고충을 겪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다음호 ⑦종단을 움직인 권력의 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일 종단을 방문한 터키 종교인들과 종교교류 및 문화체험 등에 대해 환담했다.

“다양한 문화 접하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총무원장 스님 이슬람 개신교

터키 종교인 예방 받고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터키에서 한국을 방문한 개신교와 이슬람 종교단체에 소속된 이웃종교인들을 만나 종교간 화합과 평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초청으로 종단을 방문한 이웃종교인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종교교류를 체험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면서 “한국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템플스테이 참여를 원하면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종단 방문을 환영했다. 총무

원장 스님은 또 “종립대학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도 “2014년 총무원장 스님의 터키 방문 이후 빌켄트 등 현지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등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웃종교인들은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또 꾸드렛 알타인 터키 기자작가재단 사무총장은 “불교와 이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투르가이 오칼 개신교 장로교 목사, 다니엘 스쿠빅 캘리포니아 침례교대학 인문과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종단 인증 인성프로그램 공모

운영비 지원 ‘혜택’…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사찰이나 단체 등이 기존에 펼치고 있는 인성프로그램을 종단 차원에서 인증해 줌으로써 불교계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는 간화선 및 동종치유 등의 기행분야와 함께 자기존중·성실·배려·소통·책임·예의·자기조절·정직·지혜·정의·자비 등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올바른 인성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일반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

수 인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비용과 홍보 지원, 지침서 발간, 포교원과의 공동사업 전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찰이나 단체, 기관, 학교, 개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자와 협력한 인성프로그램으로 참여가능하다. 공모신청서와 프로그램 지침서 등을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baeji@buddhism.or.kr)로 포교원에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종단 인증 인성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펼쳐왔으며 금강선원의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등 9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종단 인증 인성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3대 종교인, 서울광장 천막 설치

故 한광호 노동자 추모 기도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용스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인권센터,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함께 지난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사갈등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한광호 씨를 추모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3대 종교는 이날 광장 한쪽에 천막으로 된 기도회장을 설치해 한광호 씨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1주일간 종교인 추모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도회에 참석한 사회노동위원 도철스님은 “심각한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한광호 노동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한광호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가치 지켜나갈 것”

7기 환경위원 위촉

위원장에 수암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7기 환경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인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을 비롯해 울산 금불선원 주지 백성스님,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사진),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준환 동양대 초빙교수, 오충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이병인 부산대 교수, 이영경 동국대 교수, 이철현 동국대 연구교수, 최송

현 부산대 교수,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실장,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홍석환 부산대 교수, 해인사 사회국장 불암스님, 통도사 사회국장 성범스님 등이다. 위원 19명의 임기는 앞으로 3년이다. 환경위는 이날 2층 회의

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을 7기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인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수암스님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스님들은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구현하기 위한 일에 애쓰고 전문위원들은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위는 교구환경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반 활동을 비롯해 환경 현안과 관련된 대정부 활동, 사찰환경 보존 및 환경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제 12회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호 목조각장

청원스님 개민전

4 . 8 (금)

4 . 17 (일)

OPENING : 4.8(금) 오후2시
부산 강서예술촌 갤러리

[법당 장엄의 세계]



강서예술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도전로63 문의 : 051)972-3912 , 010-9352-0240 교통편 하단지하철역 마을버스 3번 15번 강서구청역 마을버스15번 네비게이션 : 강서예술촌 검색